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8월
박사학위논문

청소년에서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신승욱

청소년에서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

Association between bullying and smart phone
addiction among some adolescents

2014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신승욱

청소년에서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

지도교수 한미아

이 논문을 보건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신승욱

신승옥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 | | | |
|-----|----------|-----|-------|
| 위원장 | 조선대학교 교수 | 박 | 종 (인) |
| 위 원 | 조선대학교 교수 | 류 소 | 연 (인) |
| 위 원 | 조선대학교 교수 | 최 성 | 우 (인) |
| 위 원 | 호남대학교 교수 | 김 해 | 란 (인) |
| 위 원 | 조선대학교 교수 | 한 미 | 아 (인) |

2014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 | |
|--------------------------------|-----|
| 표 목 차 | ii |
| ABSTRACT | iii |
| | |
| I. 서론 | 1 |
| | |
| II. 연구방법 | 3 |
|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 3 |
| B. 조사변수 | 4 |
| C. 자료분석방법 | 6 |
| | |
| III. 연구결과 | 7 |
|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7 |
| B.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현황 | 11 |
| C. 대상자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 | 19 |
| D.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 | 23 |
| | |
| IV. 고찰 | 25 |
| | |
| V. 요약 및 결론 | 29 |
| | |
| 참고문헌 | 30 |

표 목 차

| | | |
|-------|-----------------------|----|
| 표 1. |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 6 |
| 표 2.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8 |
| 표 3. | 건강관련 특성 | 9 |
| 표 4. | 사회적 관계 | 10 |
| 표 5. | 따돌림 피해 문항분석 | 12 |
| 표 6. | 따돌림 피해 단계 | 13 |
| 표 7. | 따돌림 가해 | 14 |
| 표 8. | 따돌림 관련 경험 | 15 |
| 표 9. | 스마트폰 중독척도 | 17 |
| 표 10. | 스마트폰 중독단계 | 18 |
| 표 11. | 대상자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현황 | 20 |
| 표 12. |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현황 | 21 |
| 표 13. | 사회적 관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현황 | 22 |
| 표 14. | 따돌림 경험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 23 |
| 표 15. |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 | 24 |

ABSTRACT

Association between bullying and smart phone addiction among some adolescents

Shin, Seung-Ok

Advisor : Prof. Mi Ah Han, MD, PhD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bullying and smart phone addiction among some adolescents.

Methods: One hundred and fifty five middle and high schools in G city were selected and one class at each school were selected. All students in sample class were selected as sample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behavior, bullying experi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were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during December 2013 and January 2014. Descriptive analyses, chi-square test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assess the association between bully and smartphone addiction.

Results: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report being victims of bullying were 15.1% of total, 18.9% of boys and 12.4% of girls. And 1.7% students (2.3% of boys and 1.3% of girls) were reported that they bulled their friends. The prevalence of smartphone addiction were 13.2% of total, 10.0% of boys and 15.6% of girls. In multiple logistic analysis, the odds ratios for smartphone addiction were significantly high in student being victims of bullying (boys: aOR=1.49, 95% CI=1.02-2.06; girls: aOR=1.51, 95% CI=1.09-2.06). Also, the boys who have bulled their friends were more likely to be addicted the smartphone (aOR=3.30, 95% CI=1.62-6.69).

Conclusions: Bullying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martphone

addiction among some adolescents. Prospective study is needed to investigate these association in adolescents.

Keywords: Adolescents, Bullying, Risk factors, Smartphone addiction

I. 서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42.1%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중 가장 흔한 형태로 따돌림이 보고되고 있다(Adolescent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2014). 따돌림은 학교안과 학교밖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개인이나 집단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하여 따돌림을 받는 대상자가 고통을 느끼는 행위로 정의된다(Ministry of Legislation, 2012). 과거에는 언어적 폭력과 구타 등을 통한 따돌림이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KIC, 2014).

따돌림을 받는 피해자는 친구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인해 대인관계를 기피하고(Twemlow & Fonagy, 2005; Schafer et al, 2004), 자기주장성이 약하거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사회적 기술에 어려움을 느낀다(Salmivalli et al, 1996). 또한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과 높은 수치심으로 인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보다는 우울과 스트레스가 증가한다(Chung & Lee, 2011). 특히 청소년기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울과 공격성을 내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Rueger et al, 2011)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peland et al, 2013). 따라서 이러한 정신적 문제와 사회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KIC, 2014; Oh, 2013b).

따돌림 가해자의 특성을 보면 다른 학생을 지배하고자 하는 성향이(Olweus, 1993)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 또래 집단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고 즐거움을 느낀다(Choi & Kim, 2010; Crick & Dodge, 1996). 또한 피해자에 대한 공감하는 능력의 결여는(Olweus, 1993) 따돌림 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낮고 따돌림 자체에 대한 인식도 하지 못한다(Lee & Kwak, 2000; Olweus, 1991). 가해자의 공격성과 공감능력의 결여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중독자에서 흔히 관찰되는 특성으로 최신 이동통신기기인 스마트폰 사용자에서

도 보고되고 있다(KIC, 2014).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사용현황을 보면 2010년 2,257만명에서 2014년 3,839만명으로 빠른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4).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에서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용률이 높다(Statistics Korea, 2013). 스마트폰은 컴퓨터 기능을 휴대폰과 결합한 형태로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및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Hwang & Kweon, 2011),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Sin & Baek, 2013). 또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피로, 근육통, 안구건조,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Yun, 2012; Seo et al, 2013).

스마트폰 중독은 휴대폰 및 인터넷 중독과 더불어 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행동에 의존하는 행위중독으로 규정된다(KUCWI, 2013). 휴대폰은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작용이 중독으로 갈 수 있고(Park & Lee, 2011), 인터넷은 가상공간에서 익명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과 게임도 할 수 있어 중독 가능성이 높다(Kim & Cho, 2004). 스마트폰의 경우 상호작용성, 가상공간성 뿐만 아니라 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삭제도 가능해 습관성, 오락성, 간편성, 신속성 등으로 인해 휴대폰과 인터넷 중독에 비해 쉽게 중독 될 가능성이 높다(NIA, 2012).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중독과 따돌림과의 연구를 살펴보면 따돌림 피해자는 인터넷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인터넷에 중독 될 가능성이 높았고(Kim, 2001),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따돌림 피해시 스마트폰에 중독될 경향이 높았다(Oh, 2013b). 하지만 빠른 보급률과 이용률을 보이는 스마트폰과 따돌림 피해 및 가해와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 현황을 조사하고 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G광역시에 소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2013년 청소년 마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마음건강조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요구도를 사정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시행된 조사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제외한 중학교(88개교), 고등학교(67개교) 총 155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학교당 1개 학급을 선정한 후 표본 학급으로 선정된 학생 전원을 조사하였다.

조사 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았으며, 본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원 5명이 선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보건교사 혹은 상담교사에게 본 조사의 목적과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후 보건교사와 상담교사가 배정된 학년 중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학급추출 후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보건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 중 한명이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자발적인 참여와 비밀보장을 위한 동의를 구한 후 자가보고 형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위한 답례품은 조사에 참여한 보건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월 4일까지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조사시점에서 결석 및 조퇴 등의 사유로 학교에 없는 학생들을 제외한 해당 학급의 전수를 조사하였다. 총 5,051명이 조사를 완료하였고, 이중 핸드폰이 없는 경우(263명), 2G폰 사용자(303명), 무응답이거나 불성실한 응답을(191명)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4,29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는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B. 조사변수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 경제수준, 부모학력, 부모동거여부를 조사하였다. 지난 1년 동안 학업성취도와 자신의 집에 대한 경제수준을 묻는 질문은 ‘상·중·하’로 조사하였다. 부모님의 최종 학력은 ‘중졸·고졸·대졸·대학원졸’로 조사하였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 ‘양부모·한부모·기타’로 조사하였다.

2. 건강관련특성

건강관련 특성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아침식사, 질병여부를 조사하였다. 흡연은 최근 30일 동안 1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여부(예, 아니오)로 조사하였고, 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적어도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여부(예, 아니오)로 조사하였다. 신체활동은 평소 1주일 동안 개인적인 운동 여부(거의 하지 않는다, 주 1-2회, 주 3-4회, 주 5회 이상)로 조사하였다. 아침식사는 최근 1주일 동안 아침식사 여부(거의 하지 않는다, 주 1-2회, 주 3-5회, 주 6-7일)로 조사 하였다. 질병 여부는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1개라도 있는 경우(아토피 피부염, 비염, 천식, 위염, 장염, 심장질환, 암, 당뇨병)를 ‘예’로, 구분하였고, 질병이 ‘없다’고 작성한 경우는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3.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는 가족, 선생님과의 관계 및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조사하였다. 가족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의 질문에 대해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로 조사하였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많이 느낀다’, ‘보통이다’, ‘느끼지 않는다’로 조사하였다.

4. 따돌림

따돌림은 피해, 가해, 간접경험으로 분류하였고, 따돌림 피해는 Park(2014)과 Choi(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생정서행동선별 검사를 사용하였다. 학생정서행동선별 검사는 지난 1년 동안의 따돌림 피해 경험에 대하여 조사한 것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없음’, ‘약간 있음’, ‘상당히 있음’, ‘아주 심함’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문항에서 ‘상당히 있음’과 ‘아주 심함’에 응답한 문항이 3개 이상 있는 경우 ‘따돌림 받을 가능성이 있음’, 1-2개 문항인 경우 ‘일시적 따돌림’으로 분류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둘을 따돌림 ‘피해있음’으로 정의하였다.

따돌림 가해는 「지난 1년 동안 다른 친구나 집단에게 따돌림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느냐」에 대한 문항이며 응답 중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없다’로 구분하였고, ‘그런 편이다’와 ‘자주 그런편이다’는 ‘있다’로 구분하였다.

간접 따돌림은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누군가가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의 문항으로 간접 따돌림 경험 여부(있다, 없다)로 조사하였다. 그 중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직접 본 적이 있다면 그때 본인이 주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에 따른 응답을 하였으며 ‘방관하거나, 같이 놀림, 선생님에게 말했다’ 등을 포함한 8개의 답변으로 구성되었다.

5.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측정도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NIA, 2011)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등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역문항인 8번, 10번, 13번은 역환산하여 채점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하위구성 요소로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으로 분류되었다. 스마트폰 중독은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사용자군으로 나누어 있으며, 고위험은 총 점수가 45점 이상이거나, 또는 일상생활장애 16점 이상이면서

금단 13점 이상이고 내성 14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잠재적 위험군은 총 점수가 42점 이상 44점 이하이거나 또는 일상생활장애 14점 이상이거나 또는 금단 12점 이상 또는 내성 13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일반 사용자군은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여부에서 ‘고위험 사용자군’ 과 ‘잠재적 사용자군’을 ‘중독군’ 으로 구분하였다.

표 1.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 분 류 | 고위험군 | 잠재적 위험군 | 일반 사용자군 |
|----------|---|---|--------------------------|
| 총 점 | 45점 이상 | 42점 - 44점 이하 | 41점 이하 |
| 하부 요인 | 일상생활장애 16점 이상이면서 금단 13점 이상이고 내성 14점 이상인 경우 | 일상생활장애 14점 이상이거나 또는 금단 12점 이상 또는 내성 13점 이상 |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이 아닌 경우 |

C.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PC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특성, 사회적 관계, 따돌림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문항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사회적 관계, 따돌림 특성 간에 비교를 위해 χ^2 - test, 독립표본 t-test 을 실시하였다.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를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A. 연구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4,294명으로 남학생 1,862명(43.4%), 여학생 2,432명(56.6%)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2학년이 467명(25.1%)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성취도는 중이 936명(50.3%)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수준은 중이 1,439명(77.6%)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학력은 대졸이 872명(49.1%)이었고, 어머니 학력은 대졸이 778명(4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동거여부는 1,603명(86.3%)이 양부모와 살고 있었다.

여학생은 중학교 2학년이 492명(20.2%)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성취도는 중이 1,300명(53.5%)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수준은 중이 1,934명(79.9%)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학력은 대졸이 1,192명(50.6%)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1,083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동거여부는 2,123명(87.4%)이 양부모와 살고 있었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 단위: 명(%) | | | |
|--------|-------|-------------|-------------|-------------|----------|
| 특성 | 구분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i>p</i> |
| 계 | | n=4,294 | n=1,862 | n=2,432 | |
| 학년 | 중1 | 848(19.7) | 406(21.8) | 442(18.2) | <.001 |
| | 중2 | 959(22.3) | 467(25.1) | 492(20.2) | |
| | 중3 | 665(15.5) | 300(16.1) | 365(15.0) | |
| | 고1 | 722(16.8) | 235(12.6) | 487(20.0) | |
| | 고2 | 672(15.6) | 288(15.5) | 384(15.8) | |
| | 고3 | 428(10.0) | 166(8.9) | 262(10.8) | |
| 학업 성취도 | 상 | 4249(10.5) | 218(11.7) | 231(9.5) | .027 |
| | 중 | 2,236(52.1) | 936(50.3) | 1,300(53.5) | |
| | 하 | 1,605(37.4) | 706(38.0) | 899(37.0) | |
| 경제수준 | 상 | 185(4.4) | 104(5.6) | 81(3.3) | <.001 |
| | 중 | 3,373(78.9) | 1,439(77.6) | 1,934(79.9) | |
| | 하 | 718(16.8) | 311(16.8) | 407(16.8) | |
| 아버지 학력 | 중졸 이하 | 160(3.9) | 82(4.6) | 78(3.3) | .003 |
| | 고졸 | 1,484(35.9) | 613(34.5) | 871(37.0) | |
| | 대졸 | 2,064(49.9) | 872(49.1) | 1,192(50.6) | |
| | 대학원졸 | 425(10.3) | 210(11.8) | 215(9.1) | |
| 어머니 학력 | 중졸 이하 | 149(3.6) | 66(3.7) | 83(3.5) | .002 |
| | 고졸 | 1,845(44.8) | 762(43.2) | 1,083(46.1) | |
| | 대졸 | 1,821(44.3) | 778(44.1) | 1,043(44.4) | |
| | 대학원졸 | 300(7.3) | 159(9.0) | 141(6.0) | |
| 부모동거여부 | 양부모 | 3,729(86.9) | 1,603(86.3) | 2,123(87.4) | .406 |
| | 한부모 | 481(11.2) | 216(11.6) | 265(10.9) | |
| | 기타 | 79(1.8) | 39(2.1) | 40(1.6) | |

2. 건강관련특성

남학생은 229명(12.3%)이 흡연경험이 있으며, 음주는 354명(19.0%)이 경험이 있었다. 신체 활동은 주 1-2회인 경우가 569명(30.9%)이었고, 아침 식사는 주 6-7일 동안 식사를 하는 경우가 967명(53.0%)이었다. 질병이 있는 경우는 821명(44.5%)이었다.

여학생의 흡연 경험은 57명(2.3%)이었고, 음주는 244명(10.0%)이었다. 신체 활동은 일주일 동안 하지 않는 경우가 1,183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아침 식사는 주 6-7일 동안 식사를 하는 경우가 1,078명(44.7%)이었고, 질병이 있는 경우는 1,008명(41.8%)이었다(표 3).

표 3. 건강관련 특성

| | | | | | 단위: 명(%) |
|------|------------|-------------|-------------|-------------|----------|
| 특성 | 구분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i>p</i> |
| 흡연 | 예 | 286(6.7) | 229(12.3) | 57(2.3) | <.001 |
| | 아니오 | 4,004(93.3) | 1,630(87.7) | 2,374(97.7) | |
| 음주 | 예 | 598(13.9) | 354(19.0) | 244(10.0) | <.001 |
| | 아니오 | 3,693(86.1) | 1,506(81.0) | 2,187(90.0) | |
| 신체활동 | 7일 동안 하지않음 | 1,585(37.3) | 402(21.9) | 1,183(49.0) | <.001 |
| | 주 1-2회 | 1,279(30.1) | 568(30.9) | 711(29.5) | |
| | 주 3-4회 | 722(17.0) | 433(23.6) | 289(12.0) | |
| | 주 5회이상 | 662(15.6) | 433(23.6) | 229(9.5) | |
| 아침식사 | 7일 동안 하지않음 | 712(16.8) | 271(14.8) | 441(18.3) | <.001 |
| | 주 1-2일 | 597(14.1) | 242(13.3) | 355(14.7) | |
| | 주 3-5일 | 882(20.8) | 345(18.9) | 537(22.3) | |
| | 주 6-7일 | 2,045(48.3) | 967(53.0) | 1,078(44.7) | |
| 질병여부 | 있다 | 1,829(43.0) | 821(44.5) | 1,008(41.8) | .080 |
| | 없다 | 2,425(57.0) | 1,023(55.5) | 1,402(58.2) | |

3. 사회적 관계

남학생은 가족관계가 보통인 경우는 370명(19.9%)이었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쁜 경우는 82명(4.4%)이었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보통인 경우는 585명(31.5%)이었다.

여학생은 가족관계가 보통인 경우는 461명(19.0%)이었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쁜 경우는 84명(3.5%)이었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보통인 경우는 822명(33.9%)이었다(표 4).

표 4. 사회적 관계

| | | 단위: 명(%) | | | |
|-------|---------|-------------|-------------|-------------|----------|
| 특성 | 구분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i>p</i> |
| 가족관계 | 나쁘다 | 267(6.2) | 128(6.9) | 139(5.7) | .189 |
| | 보통이다 | 831(19.4) | 370(19.9) | 461(19.0) | |
| | 좋다 | 3,186(74.4) | 1,360(73.2) | 1,826(75.3) | |
| 선생님관계 | 나쁘다 | 166(3.9) | 82(4.4) | 84(3.5) | .280 |
| | 보통이다 | 1,527(35.6) | 658(35.4) | 869(35.8) | |
| | 좋다 | 2,592(60.5) | 1,119(60.2) | 1,473(60.7) | |
| 학교소속감 | 느끼지 않는다 | 384(9.0) | 196(10.5) | 188(7.7) | .004 |
| | 보통이다 | 1,407(32.8) | 585(31.5) | 822(33.9) | |
| | 많이 느낀다 | 2,493(58.2) | 1,077(58.0) | 1,416(58.4) | |

B.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 현황

1. 따돌림

a. 따돌림 피해

따돌림 피해 현황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없다」는 전체 263명(6.1%)으로 남학생 137명(7.4%), 여학생 126명(5.2%)이었다. 「친구들이 내가 싫어하는 별명으로 비웃는 적이 있다」는 전체 190명(4.4%)으로 남학생 128명(6.6%), 여학생 62명(2.3%)이었다.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녀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든 친구가 있다」는 전체 129명(4.4%)로 남학생 46명(2.5%), 여학생 83명(3.4%)이었다. 전체 163명(3.8%)이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없다」고 하였고, 남학생은 82명(4.5%), 여학생 88명(3.4%)이었다(표 5).

표 5. 따돌림 피해 척도의 문항 분석†

단위: 명(%)

| 문항 | 진체 | 남학생 | 여학생 |
|---|----------|----------|----------|
| 1. 나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위협이나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 42(1.0) | 31(1.7) | 11(0.5) |
| 2. 나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이유 없이 신체적으로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 | 56(1.3) | 44(2.4) | 12(0.5) |
| 3. 나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없다. | 263(6.1) | 137(7.4) | 126(5.2) |
| 4. 나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 97(2.3) | 64(3.5) | 33(1.3) |
| 5. 나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빼앗긴 적이 있다. | 25(0.6) | 20(1.1) | 5(0.2) |
| 6. 나는 학교에 가기가 두렵다. | 41(1.0) | 22(1.2) | 19(0.8) |
| 7.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없다. | 170(3.8) | 82(4.5) | 88(3.4) |
| 8.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 61(1.4) | 42(2.2) | 19(0.8) |
| 9. 친구들이 나를 일부러 따돌리고 소외시키며, 완전히 무시한 적이 있다. | 68(1.6) | 33(1.8) | 35(1.4) |
| 10.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녀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든 친구가 있다. | 129(4.4) | 46(2.5) | 83(3.4) |
| 11. 친구들이 내가 싫어하는 별명으로 나를 부르며 비웃은 적이 있다. | 190(4.4) | 128(6.6) | 62(2.3) |
| 12.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친구가 있다. | 37(0.9) | 26(1.4) | 11(0.4) |

† '상당히 있음' 과 '아주 심함' 을 응답한 경우

따돌림 피해를 구분시에는 따돌림의 피해가 있는 경우는 전체 650명(15.1%)으로 남학생은 347명(18.9%)이었다. 그 중 일시적 따돌림을 받을 가능성은 285명(15.6%)이었고 따돌림 받을 가능성 있는 경우는 62명(3.3%)이었다. 여학생은 따돌림 피해를 받는 경우는 300명(12.4%)으로 일시적 가능성은 266명(10.9%), 따돌림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37명(1.5%)이었다(표 6).

표 6. 따돌림 피해단계

| 특성 | 단위: 명(%) | | |
|----------------------|-------------|-------------|-------------|
|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 따돌림 피해없음 | 3,644(84.9) | 1,515(81.1) | 2,129(87.6) |
| 따돌림 피해있음(1개 이상 문항)† | 650(15.1) | 347(18.9) | 300(12.4) |
| 일시적 따돌림 (1-2개 문항) | 551(12.8) | 285(15.6) | 266(10.9) |
| 따돌림 받을 가능성 (3개 문항이상) | 99(2.3) | 62(3.3) | 37(1.5) |

† ‘상당히 있음’ 과 ‘아주 심함’ 을 응답한 문항 수

b. 따돌림 가해

「지난 1년 동안 다른 친구나 집단에게 따돌림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가」는 전체 73명(1.7%)으로 남학생 42명(2.3%), 여학생 31명(1.3%)이 따돌림 가해경험이 있었다(표 7).

표 7. 대상자의 따돌림 가해

| 특성 | 단위: 명(%) | | |
|--------|-------------|-------------|-------------|
|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 따돌림 가해 | | | |
| 있다 | 73(1.7) | 42(2.3) | 31(1.3) |
| 없다 | 4,162(98.3) | 1,787(97.7) | 2,375(98.7) |

c. 따돌림 간접 경험

따돌림 간접 경험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누군가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본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 297명(7.0%)으로, 남학생 148명(8.1%), 여학생 149명(6.2%)이었다. 「따돌림을 본적이 있다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다중응답 문항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134명(47.0%)으로 남학생 60명(43.2%), 여학생 74명(50.7%)이었다. 하지만 「같이 놀리는 경우」도 전체 25명(8.8%)으로 남학생 14명(10.1%), 여학생 11명(7.5%)이었다(표 8).

표 8. 대상자의 따돌림 관련 경험

| 특성 | 단위: 명(%) | | |
|-------------------|-------------|-------------|-------------|
|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 따돌림 간접 경험 | | | |
| 있다 | 297(7.0) | 148(8.1) | 149(6.2) |
| 없다 | 3,944(93.0) | 1,681(91.9) | 2,263(93.8) |
| 따돌림 간접 경험에 따른 행동† | | | |
| 아무런 행동 하지않음 | 134(47.0) | 60(43.2) | 74(50.7) |
| 모르는척함 | 91(31.9) | 39(28.1) | 52(35.6) |
| 웃기만함 | 52(18.2) | 34(24.5) | 18(12.3) |
| 같이놀림 | 25(8.8) | 14(10.1) | 11(7.5) |
| 괴롭히지 못하도록 말림 | 48(16.8) | 26(18.7) | 22(15.1) |
| 선생님께 말함 | 48(16.8) | 15(10.8) | 33(22.6) |
| 피해 학생을 위로함 | 61(21.4) | 27(19.4) | 34(23.3) |
| 경찰에 신고 | 2(0.7) | 1(0.7) | 1(0.7) |

† 다중응답

2.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현황을 하부요인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장애는 총 14.4 ± 2.4 점이었고, 남학생 14.3 ± 2.3 점, 여학생 14.5 ± 2.5 점이었다.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은 총 3.7 ± 1.4 점이었고, 남학생 3.7 ± 1.5 점, 여학생 3.8 ± 1.3 점이었다. 금단증상은 총 9.4 ± 2.8 점이었고, 남학생 9.1 ± 2.7 점, 여학생 9.6 ± 2.9 점이었다. 내성은 총 11.5 ± 2.3 점이었고, 남학생 11.1 ± 2.3 점, 여학생 11.7 ± 2.3 점이었다(표 9).

표 9. 스마트폰 중독척도

| | | 단위: M±SD | | |
|----------------------|--|-----------------|-----------------|-----------------|
| 문항 |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 일상생활 장애 | | 14.4±2.4 | 14.3±2.3 | 14.5±2.5 |
| 1 |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 2.7±0.8 | 2.7±0.9 | 2.7±0.8 |
| 2 |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 2.7±0.8 | 2.6±0.9 | 2.7±0.8 |
| 3 |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 2.8±0.8 | 2.8±0.7 | 2.8±0.8 |
| 4 |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 2.8±0.8 | 2.8±0.8 | 2.8±0.8 |
| 5 |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3.4±0.8 | 3.2±0.8 | 3.4±0.7 |
| 가상세계 지향 | | 3.7±1.4 | 3.7±1.5 | 3.8±1.3 |
| 6 |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 2.0±0.9 | 2.0±0.9 | 2.0±0.8 |
| 7 |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1.7±0.8 | 1.6±0.8 | 1.7±0.8 |
| 금단 | | 9.4±2.8 | 9.1±2.7 | 9.6±2.9 |
| 8 |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 2.6±0.9 | 2.5±0.9 | 2.6±0.9 |
| 9 |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전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 2.0±0.9 | 1.9±0.9 | 2.1±0.9 |
| 10 |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 3.0±0.9 | 2.9±0.9 | 3.1±0.8 |
| 11 |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 | 1.7±0.8 | 1.6±0.8 | 1.7±0.8 |
| 내성 | | 11.5±2.3 | 11.1±2.3 | 11.7±2.3 |
| 12 |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 2.6±0.8 | 2.5±0.9 | 2.6±0.8 |
| 13 |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 3.0±0.8 | 3.0±1.1 | 3.1±0.8 |
| 14 |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 2.9±0.8 | 2.7±0.9 | 3.0±0.7 |
| 15 |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 2.9±0.8 | 2.7±0.8 | 3.0±0.8 |
| 스마트폰 중독 점수 총점 | | 39.3±5.9 | 38.3±5.5 | 39.8±6.0 |

스마트폰 중독 단계에 따라 구분시에는 스마트폰 중독이 없는 경우는 전체 3,728명(86.5%)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1,675명(90.0%)이 스마트폰 중독이 없었고 스마트폰 중독이 있는 군은 187명(10.0%)이었으며, 이중 잠재적 위험군은 165명(8.8%), 고위험군은 22명(1.2%)이었다.

여학생은 스마트폰 중독이 없는 경우는 2,053명(84.4%)이었고, 스마트폰 중독이 있는 군은 379명(15.6%)이었다. 이중 잠재적 위험군은 298명(12.3%), 고위험군은 81명(3.3%)이었다(표 10).

표 10. 스마트폰 중독 단계

| 특성 | 단위: 명(%) | | |
|------------|-------------|-------------|-------------|
|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 스마트폰 중독 없음 | 3,728(86.5) | 1,675(90.0) | 2,053(84.4) |
| 스마트폰 중독 있음 | 566(13.2) | 187(10.0) | 379(15.6) |
| 잠재적 위험군 | 463(10.8) | 165(8.8) | 298(12.3) |
| 고위험군 | 103(2.4) | 22(1.2) | 81(3.3) |

C. 대상자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

1. 대상자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0%이었고, 학년, 학업성취도, 경제수준, 아버지학력, 어머니학력, 부모동거여부는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geq 0.05$).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5.6%이었고, 학년, 학업성취도, 경제수준, 아버지학력, 부모동거여부는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05$). 어머니학력은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geq 0.05$)(표 11).

표 11. 대상자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현황

| | | 단위: 명(%) | | | | |
|--------|--------|-----------|-----------|-----------|-----------|----------|
| 특성 | 구분 | 전체 | 남학생 | <i>p</i> | 여학생 | <i>p</i> |
| 중독률 | | 566(13.2) | 187(10.0) | | 379(15.6) | |
| 학년 | 중1 | 98(11.6) | 41(10.1) | .079 | 57(12.9) | <.001 |
| | 중2 | 132(13.8) | 54(11.6) | | 78(15.9) | |
| | 중3 | 100(15.0) | 32(10.7) | | 68(18.6) | |
| | 고1 | 121(16.8) | 29(12.3) | | 92(18.9) | |
| | 고2 | 89(13.2) | 24(8.3) | | 65(16.9) | |
| | 고3 | 26(6.1) | 7(4.2) | | 19(7.3) | |
| | 학업 성취도 | 상 | 44(9.8) | | 18(8.3) | |
| | 중 | 258(11.5) | 94(9.4) | 164(12.6) | | |
| | 하 | 264(16.4) | 75(10.6) | 189(21.0) | | |
| 경제수준 | 상 | 16(8.6) | 9(8.7) | .764 | 7(8.6) | .028 |
| | 중 | 435(12.9) | 142(9.9) | | 294(15.2) | |
| | 하 | 112(15.6) | 34(10.9) | | 78(19.2) | |
| 아버지 학력 | 중졸 | 26(16.3) | 9(11.0) | .115 | 17(21.8) | .032 |
| | 고졸 | 208(14.0) | 52(8.5) | | 156(17.9) | |
| | 대졸 | 251(12.2) | 87(10.0) | | 164(13.8) | |
| | 대학원졸 | 63(14.8) | 30(14.3) | | 33(15.3) | |
| | 어머니 학력 | 중졸 | 20(13.4) | | 6(9.1) | |
| | 고졸 | 241(13.1) | 70(9.2) | 171(15.8) | | |
| | 대졸 | 245(13.5) | 82(10.5) | 163(15.6) | | |
| | 대학원졸 | 42(14.0) | 19(11.9) | 23(16.3) | | |
| 부모동거여부 | 양부모 | 482(12.9) | 163(10.2) | .865 | 319(15.0) | .047 |
| | 한부모 | 69(14.3) | 21(9.7) | | 48(18.1) | |
| | 기타 | 14(17.7) | 3(7.7) | | 11(27.5) | |

2.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연구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흡연은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45$), 음주, 신체활동, 아침식사, 질병여부는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geq 0.05$).

여학생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아침식사 등이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 < 0.001$), 질병여부는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495$)(표 12).

표 12.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현황

| 특성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전체 | 남학생 | <i>p</i> | 여학생 | <i>p</i> |
| 흡연 | 예 | 53(18.5) | 32(14.0) | .045 | 21(36.8) | <.001 |
| | 아니오 | 512(12.8) | 154(9.4) | | 358(15.1) | |
| 음주 | 예 | 99(16.6) | 40(11.3) | .378 | 59(24.2) | <.001 |
| | 아니오 | 467(12.6) | 147(9.8) | | 320(14.6) | |
| 신체활동 | 7일 동안 하지않음 | 279(17.6) | 52(12.9) | .099 | 227(19.2) | <.001 |
| | 주 1-2회 | 148(11.6) | 57(10.0) | | 91(12.8) | |
| | 주 3-4회 | 736(10.1) | 36(8.3) | | 37(12.8) | |
| | 주 5회이상 | 59(8.9) | 37(8.5) | | 22(9.6) | |
| | | | | | | |
| 아침식사 | 7일 동안 하지않음 | 104(14.6) | 25(9.2) | .539 | 79(17.9) | <.001 |
| | 주 1-2일 | 99(16.6) | 28(11.6) | | 71(20.0) | |
| | 주 3-5일 | 132(15.0) | 40(11.6) | | 92(17.1) | |
| | 주 6-7일 | 223(10.9) | 91(9.4) | | 132(12.2) | |
| | | | | | | |
| 질병여부 | 있다 | 247(13.5) | 84(10.2) | .877 | 163(16.2) | .495 |
| | 없다 | 314(12.9) | 102(10.0) | | 212(15.1) | |

3. 사회적 관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남학생은 가족관계, 선생님관계가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5$), 학교 소속감은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06$).

여학생은 가족관계, 선생님관계, 학교 소속감이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 13).

표 13 사회적 관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현황

| 특성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전체 | 남학생 | <i>p</i> | 여학생 | <i>p</i> |
| 가족관계 | 나쁘다 | 59(22.1) | 17(13.3) | .010 | 42(30.2) | <.001 |
| | 보통이다 | 154(18.5) | 50(13.5) | | 104(22.6) | |
| | 좋다 | 350(11.0) | 118(8.7) | | 232(12.7) | |
| 선생님관계 | 나쁘다 | 40(24.1) | 13(15.9) | .017 | 27(32.1) | <.001 |
| | 보통이다 | 229(15.7) | 77(11.7) | | 162(18.6) | |
| | 좋다 | 283(10.9) | 95(8.5) | | 188(12.8) | |
| 학교소속감 | 느끼지 않는다 | 23(21.7) | 24(12.2) | .506 | 49(26.1) | <.001 |
| | 보통이다 | 131(15.4) | 55(9.4) | | 145(17.6) | |
| | 많이 느낀다 | 409(12.3) | 106(9.8) | | 184(13.0) | |

D.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

남학생에서 따돌림 피해가 있는 경우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3.8%, 없는 경우는 9.2%로 피해가 있는 경우 스마트폰 중독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3$). 또한 따돌림 가해(26.2% vs 9.7%, $p<.001$)나 따돌림 간접경험이(14.9% vs 9.6%, $p=0.045$) 있는 경우도 스마트폰 중독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여학생의 따돌림 피해가 있는 경우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24.8%, 없는 경우는 14.3%로 피해가 있는 경우 스마트폰 중독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따돌림 가해(25.8% vs 15.6%, $p=0.281$)나 따돌림 간접경험은(20.1% vs 15.2%, $p=0.128$)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4).

표 14. 따돌림 경험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 특성 | 단위: 명(%) | | | | |
|-----------|-----------|-----------|----------|-----------|----------|
| | 전체 | 남학생 | <i>p</i> | 여학생 | <i>p</i> |
| 따돌림 피해 | | | | | |
| 있다 | 123(18.9) | 48(13.8) | .013 | 75(24.8) | <.001 |
| 없다 | 443(12.2) | 187(9.2) | | 304(14.3) | |
| 따돌림 가해 | | | | | |
| 있다 | 19(26.0) | 11(26.2) | .001 | 8(25.8) | .281 |
| 없다 | 543(13.0) | 173(9.7) | | 370(15.6) | |
| 따돌림 간접 경험 | | | | | |
| 있다 | 52(17.5) | 22(14.9) | .045 | 30(20.1) | .128 |
| 없다 | 506(12.8) | 161(9.6) | | 345(15.2) | |

따돌림 관련 특성들을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하여 통제된 상태에서 유의한 변수를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따돌림 피해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비차비가 1.49(95% CI=1.02-2.06)로 따돌림 피해와 스마트폰 중독은 관련이 있었다. 따돌림 가해는 따돌림 가해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비차비가 3.30(95% CI=1.62-6.69)로 유의하였다. 따돌림 간접경험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비차비가 1.53(95% CI=0.94-2.51)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학생은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비차비가 1.51(95% CI=1.09-2.06)로 유의하였으나, 따돌림 가해와 간접경험은 유의하지 않았다(표 15).

표 15. 따돌림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

| 특성 | 남학생 | | 여학생 | |
|-----------|---------------------|---------------------|---------------------|---------------------|
| | cOR (95% CI) | aOR (95% CI) | cOR (95% CI) | aOR (95% CI) |
| 따돌림 피해 | | | | |
| 없다 | 1 | 1 | 1 | 1 |
| 있다 | 1.56 (1.10-2.20) | 1.49 (1.02-2.06) | 1.79 (1.34-2.41) | 1.51 (1.09-2.06) |
| 따돌림 가해 | | | | |
| 없다 | 1 3.52 | 1 | 1 | 1 |
| 있다 | (1.76-7.08) | 3.30 (1.62-6.69) | 1.29 (0.48-3.44) | 0.66 (0.23-1.90) |
| 따돌림 간접 경험 | | | | |
| 없다 | 1 1.53 | 1 | 1 | 1 |
| 있다 | (0.94-2.48) | 1.53 (0.94-2.51) | 1.32 (0.87-2.01) | 1.28 (0.82-2.00) |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보정변수: 남학생(흡연, 가족관계, 선생님관계), 여학생(학년, 학업성취도, 경제수준, 아버지 학력, 부모동거여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아침식사, 가족관계, 선생님관계, 학교소속감)

IV. 고찰

본 연구는 일부 청소년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따돌림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로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으면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따돌림 가해경험이 있으면 스마트폰 중독이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 따돌림 피해가 있는 경우는 전체 15.1%로 남학생 18.9%, 여학생 12.4%이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3.9%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고(Yoon, 2007), 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9.8%로 조사되어 본 연구보다 높았지만(Lee, 2010) 본 연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분류시에는 중학생 17.3%, 고등학생 12.7%로 유사하였다. 따돌림 가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전체 1.7%로 남학생 2.3%로 여학생 1.3% 보다 높았다. 중·고등학생 5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 5.5%, 여학생 5.3%로 조사되었고(Cheon, 2010), 초·중·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 17.6%, 여학생 14.2%이었고, 학교 분류에 따라서는 초등학생 14.3%, 중학생 15.6%, 고등학생 1.6%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Choi & Kim, 2010). 본 연구가 중·고등학생만을 포함하여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었고, 선행연구는 학원에서 이루어진 따돌림 가해경험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돌림 당하는 것을 직접 본적이 있는가에 대한 간접경험은 본 연구에서 전체 7.0%이고, 남학생이 8.1%로 여학생 6.2%보다 높았고, 따돌리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도 47.0%로 조사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따돌림을 목격한 이후 방관하는 경우가 50.9%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KIC, 2014). 따돌림을 보고 방관하는 경우는 폭력에 대한 무감각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자기합리화를 통한 죄의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Bahn & Choi, 2013). 학교에서 따돌림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성인이 되어 직장에서도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33.3%나 높았다(Seo & Shin, 2013). 이는 따돌림 간접경험으로도 자신이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Vartia, 2001). 청소년기는 학교라는 공

간에서 또래집단과 함께 생활하는 곳으로 따돌림 피해나 가해가 발생할 경우 목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따돌림 간접경험을 한 학생에 대해서도 관심과 상담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중독률은 전체 13.2%이며, 여학생이 15.6%로 남학생 10.0%보다 높았다. 일부 지역의 중·고등학생 65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률은 전체 15.2%이며, 여학생이 17.5%로 남학생 13.6%보다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Keum, 2013). 여학생은 가상현실에서 대화를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점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Bachan, et al, 2010). 한국인터넷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2011년 11.4%에서 2013년 23.5%로 급격히 증가하였고(NIA, 2013), G광역시외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률은 8.8%로 조사되었다. 한국인터넷정보화진흥원 조사의 경우 초등학생이 포함되었고, 확률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본 조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사회적 관계를 통제한 상태에서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따돌림 피해시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로 친구로부터 소외감이 학교 적응을 위한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Oh, 2013a; Kim, 2013; Jung & Ha, 2013). 또한 소외감을 느끼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한 단체 게임이나 대화 등이 휴대폰 중독으로 연결될 수 있다(Park & Kim, 2008). 소외감은 우울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기피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휴대폰 중독으로 갈 수 있으며, 과몰입된 사용은 자기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Han & Hur, 2004; Ha & Lee, 2009). 따라서 따돌림 피해가 있는 경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중독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따돌림 가해 경험이 있으면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따돌림 가해와 관련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따돌림을 포함한 학교 폭력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었다(Cha, 2009). 최근 따돌림 가해의 형태가 기존의 신체적 폭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의 형태로 변화되

고 있어(KIC, 2014), 따돌림 가해를 위한 잦은 스마트폰 사용이 중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 뇌 전두엽 피질의 손상으로 인해 신경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Teicher et al, 2010). 전두엽 피질은 의사소통 등 사회적 관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두엽이 손상되면 배려심과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Eisenberger et al, 2003). 전두엽 기능이 손상되면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의 문제가 발생하여 자기통제력이 떨어지며(Rossouw, 2013), 자극적인 것에 몰입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이는 인터넷이나 이동통신기기 중독자에서 흔히 관찰되는 성향이다. 따라서 가해 도구로서 스마트폰의 잦은 사용과 가해자와 중독자의 성향이 유사함으로 인해 가해 경험자에서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남학생의 경우 흡연경험이 있고, 가족 또는 선생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중독률이 높았다. 여학생은 학업성취도, 경제수준, 아버지 학력이 낮을수록 중독이 높았고, 건강행태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아침식사가 관련이 있었으며, 사회적관계인 가족, 선생님, 학교소속감이 좋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 중독이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으로(Kim, 2013) 스마트폰 중독은 가정환경이나 학교생활 모두와 관련되어 있어 향후 스마트폰 중독 관리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공동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단면조사로 수행된 연구이므로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의 시간과 관련한 전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자에서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따돌림 피해나 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 평가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므로 자신의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따돌림과 최근 높은 보급률과 이용률을 보이는 스마트폰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따돌림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스마트폰 중독을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사회관계 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고, 따돌림을 피해자, 가해자, 간접경험 등으로 분류하여 스마트폰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추후에

도 전향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따돌림과 스마트폰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V. 요약 및 결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어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G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1월 4일까지 설문지를 배포 후 수거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총 4,294명으로 남학생 1,862명(43.4%), 여학생 2,432명(56.6%)이었다. 조사 변수는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학업성취도, 경제수준, 부모학력, 부모동거여부), 건강관련특성(흡연, 음주, 신체활동, 아침식사, 질병여부), 사회적 관계(가족관계, 선생님관계, 친구관계, 학교소속감), 따돌림(따돌림 피해, 가해, 간접경험), 스마트폰 중독여부를 조사하였다. 연구 분석방법은 청소년의 따돌림과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보정 후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따돌림 피해는 전체 15.1%로 남학생은 18.9%, 여학생은 12.4%이었다. 따돌림 가해는 1.7%로 남학생 2.3%, 여학생은 1.3%이었다. 따돌림 간접경험은 전체 7.0%로 남학생 8.1%, 여학생은 6.2%이었다. 스마트폰 중독군은 전체 13.2%로 남학생 10.0%, 여학생 15.6%이었다. 따돌림 피해시 남녀모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비차비가 유의하였고(남학생: aOR=1.49, 95% CI=1.02-2.06; 여학생: aOR=1.51, 95% CI=1.09-2.06), 따돌림 가해는 남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이 유의하게 높았다(aOR=3.30, 95% CI=1.62-6.69).

결론적으로 일부지역 청소년에서 따돌림 피해 또는 가해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성이 있었다. 향후에는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 따돌림 유형 분류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dolescent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2013 The actual condition of school violence. 2014.
- Bachan K, Stevenson S, Gaa NVD. Girls in cyberspace: dangers and opportunities. plan-international.org. 2010.
- Bahn GH, Choi YS. The role of physicians in preventing school bullying. The Korea Journal of Medical Association. 2013;56(7):554-558.
- Cha AI. The relation between internet addiction, Family violence, impulsiveness and school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 University, Mokpo, 2009.
- Cheon KM. The influence of physical self-percep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bullying experience of adolescence. Th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of Curriculum. 2010;14(1):47-65.
- Choi MS.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and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Mediators of depression, anxiety, dysfunctional impulsivity,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Seoul, 2013.
- Choi SM, Kim DI. Aggressive behavior by types of bystanders' roles.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0;18(1):59-72.
- Chung IJ, Lee JY. The pathways from child abuse and school bullying to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adolescence : With a special focus on differences in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Studies on Youth. 2011;23(2):217-242.
- Copeland WE, Wolke D, Angold A, Costello EJ. Adult Psychiatric outcomes of Bullying and being Bullied by pe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Psychiatry. 2013;70(4):419-426.
- Crick NR, Dodge K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s on reactive and

-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1996;67:993-1002.
- Eisenberger NI, Lieberman MD, Williams KD. Does rejection hurt? A fMRI study of social rejection. *Science*. 2003;302(5643):290-292.
- Ha MS, Lee SB. The influence of the children 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self elasticity to adjust to school life.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09;18(3):247-258.
- Han J,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mobile phone addiction scale. *Th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4;48(6):138-166.
- Hwang KH, Kweon SH. A Study on the evolution of smart phone and cultural capital, *The Korean Journal of Association for Cultural Economics*. 2011;14(2):3-33.
- Jung JY, Ha JH. The effects of general stress and emotional expression on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mart phone addiction.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and Counseling*. 2013;3(1):61-77.
- Keum CM. Research into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and mental health problem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at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3.
- Kim JY.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school resili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ransactional Analysis & Counseling*. 2013;3(2):63-79.
- Kim SC. A study on internet addictive use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2001.
- Kim SS, Cho DG.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patterns and sub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Studies on Korean Youth*. 2004;15(2):355-384.
- Kim YK.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on stress, internet addiction and gambling behavior amongst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Studies on Korean Youth*. 2013;24(1):127-156.
- Korea Youth Counseling Welfare Institute. Development of the manual for smartphone addiction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 2013.

- Lee CJ, Kwak KJ. Self concept & social support according to bullying type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00;13(1):65-80.
- Lee HS. Self esteem, stress,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who are victims of bullying. The Korean Journal of Academy Fundamental Nursing. 2010;17(4):548-557.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KIC). A study on the political countermeasures against juvenile bullying. 2014.
- Lereya ST, Wolke D. Prenatal family adversity and maternal mental health and vulnerability to peer victimisation at schoo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2013;54(6):644-652. Doi: 10.1111/jcpp.12012.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 Development of korea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youth and adults national information. 2011.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 A study on featur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of smart-media addiction. 2012.
- Ministry of Legislation,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2012, Article 2.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4, www.msip.go.kr.
- Oh SY. A study on the reasons and solutions of internet addiction in multi cultural family.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013a;9:165-189.
- Oh SY. A study the cause and preventive measures of smartphone addiction in multi cultural family analysis of in depth interview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013b;8(1):147-180.
- Olweus D. 1993. <http://antibullyingsoftware.com/bullying-resource-center/bullying-resource-center.html>.
- Olweus D. Bully 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1991;17:411-448.
- Park WY, Kim KW.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oiettolie traits and their risks of gaming addic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 Psychotherapy. 2008;20(3):839-861.
- Park YJ.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emotion of bullied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Incheon, 2014.
- Rossouw P. Defining bullying: The role of neurobiological mar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Neuropsychotherapy*. 2. 2013.
- Rueger SY, Malecki CK, Demaray MK. Stability of peer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Effects of timing and dur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11;49(4):443-464.
- Salmivalli C, Karhunen J, Lagerspetz KMJ. How do the victims respond to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1996;22:99-109.
- Schafer M, Korn S, Smith PK, Hunter SC, Mora-Merchan JA, Singer MM et al. Lonely in the crowd: Recollections of bully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4;22:379-394.
- Seo MJ, Choi TY, Woo JM, Kim JH, Lee JH. A comparative study of smartphone and internet addiction on adolescent psychopathology. *The Korean Journal of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2013;19(2):155-162.
- Seo YJ, Shin JH.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school bullying and workplace bullying and recommendations to prevent bullying, KRIVET. 2013.
- Sin SC, Baek SK.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to aggression in youths. *The Korean Journal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2013;9(11):345-362.
- Society Agency, NIA. 2013 Study of Internet Addiction. Statistics Korea. 2013, <http://kostat.go.kr>
- Teicher MH, Samson JA, Sheu YS, Polcari A, McGreenery CE. Hurtful words: association of exposure to peer verbal abuse with elevated psychiatric symptom scores and corpus callosum abnormaliti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2010;167(12):1464-1471.
- Twemlow SW, Fonagy P. The prevalence of teachers who bully students in schools with differing levels of behavioral problem.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2005;162(12):2387-2389.

Yoon YM. Analysis on bullying tendencies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07;21(2):230-240.

Yun JY, Moon JO, Kim MJ, Kim YJ, Kim HO, Huh BI et al. Smart Phone addiction and health problem in university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2011;3(2):92-104.

Vartia MA. Consequences of workplace bullying with respect to the well-being of its targets and the observers of bullying.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 Health. 2001;27(1):63-69.